

우리나라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차슬기¹, 변해원^{2*}

¹호남대학교 대학원 재활과학과 언어치료전공

²호남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언어치료학과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the Influential Factors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Korean Teens

Seulki Cha¹, Haewon Byeon^{2*}

¹Department of Rehabilitation, Graduate School, Honam University

²Department of Speech Language Pathology, Honam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수행된 우리나라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연구 방법은 국내 학술데이터베이스에서 ‘다문화’,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 ‘수용성’의 키워드를 이용하여 논문을 검색하였고, 최종 65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연도, 학문 분야, 연구방법, 주요개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2년을 기점으로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 모두 급증하였고, 학문분야는 사회과학분야, 교육학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양적연구와 단면연구의 비중이 높았다. 주요개념은 다문화 교육, 친구나 교사관계와 같은 학교 지역사회요인에 국한되어있으며 새로운 요인을 동시에 분석한 연구는 드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조사하여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들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교육, 청소년, 연구 동향

Abstract The study provided basic data that could be used for future research by identifying trends in the factors that affect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Korean teens from 2008 to 2017. Research methods have searched for papers using keywords from ‘Multicultural’, ‘Youth’, ‘Middle School Student’, ‘High School Student’ and ‘Acceptance’ in academic data base. As a result of analysis, journal articles and dissertations soared as of 2012, and the academic field identified the largest number of studies being carried out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 and pedagogy. Quantitative research and cross-sectional study were the most important methods of previous research. On the other hand, few studies have concurrently analyzed new factors related to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e need for a combined analysis of the new factors that may affect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adolescents.

Key Words : Multicultur, Acceptability, Multicultural education, Adolescent, Trend of research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과거 단일민족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은 현재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122,552명이었던 결혼 이민자의 수는 2016년 152,374명으로 9년 만에 약 1.2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 결혼 이민자 가정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다문화 청소년의 수도

*Corresponding Author : Hae won Byeon(bhwpuma@naver.com)

Received January 29, 2018

Accepted March 20, 2018

Revised March 2, 2018

Published March 28, 2018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8년 58,007명이었던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2016년 201,333명으로 조사되었다[1].

다문화 가정과 청소년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201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친구들에게 차별 받은 경험이 있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88.9%로 조사되었다[2].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은 친구나[3] 교사와 같은 학교요인과 사회적 제도에서 차별을 경험하였으며[4], 차별 경험은 생활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 게다가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일수록 우울증 경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6].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self-esteem)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7] 나아가 자살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8].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뿐만 아니라 수용적 태도의 확산이 필요하다. 이처럼 이질적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다문화 수용성(multicultural acceptability)으로 정의한다[9].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다문화 수용 지수(KMAI-A)에 따르면, 2012년 60.12점에서 2015년 67.63점으로 7.51점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10명 중 3명은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8].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다문화 학생들과 접촉이 높을수록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0]. 따라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한국에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수용에 대한 일반 가정 학생들의 전반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문화 수용성의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을 비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1]. 이는 중학생 이상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재 다문화 청소년과 관련된 연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선행연구는 주로 일부 요인과 관련된 다문화 수용성을 파악하거나[12]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단면 연구(cross-sectional study)에[13] 머무르고 있으며 장기적인 추적을 통해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가 드문 실정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술적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연구 분석에 사용된 논문은 DBpia, 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스크라, 코리아 스크라, 학술교육원, 학술정보서비스, 학지사 뉴논문의 국내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하였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국내에서 발간된 논문 중 ‘다문화’,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 ‘수용성’의 5개 키워드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를 선정하였다. 석사·박사 학위논문 21편, 학술지 논문 44편이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2.3 분석 방법

본 연구에 선정된 논문 분석은 Yun의 연구[14]에서 사용된 기준을 수정 및 보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발표년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간 발표된 연구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학문분야: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으로 구분하고 학술지 논문은 연구 분야와 수행분야의 하위범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방법: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종단연구와 단면연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주제: 키워드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발표년도

2011년까지 매년 2건 이하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특히 2010년에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2008-2012년 9편(15%), 2013-2017년 56편(85%)로 조사되었으며 2012년부터 출판된 논문 수가 증가하였다. 2017년 15편으로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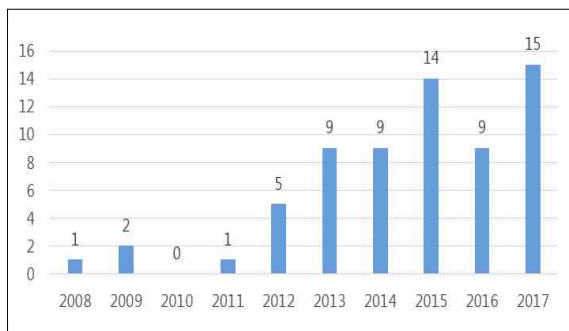


Fig. 1. Trends of research chronology

3.2 학문분야

우리나라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학문분야별 분석 결과, 검색된 논문은 학위논문 21편(32%), 학술지 논문 44편(68%)으로 조사되었으며 학위논문은 2012년까지 1편이었으나 2013년부터 20편으로 급증하였다. 학술지 논문의 경우 청소년학연구 6편(13%), 청소년복지연구 3편(7%), 다문화교육연구 2편

(4%), 다문화콘텐츠연구 2편(4%), 사회과학연구 2편(4%), 학습자중심교육학회 2편(4%), 인간발달학회 2편(4%), 그 외 25개 학술지에서 각 1편(59%)으로 조사되었다. 연구 수행 분야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 기준을 통해 분류하였으며 분류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타사회과학 17편(39%), 교육학 11편(25%), 사회복지학 4편(9%), 학제간 연구 3편(7%), 청소년 복지 2편(5%) 과학기술학 1편(2%), 문화예술경영 1편(2%), 사회과학 1편(2%), 사회과학일반 1편(2%), 사회학 1편(2%), 심리학 1편(2%), 일반공학 1편(2%)으로 조사되었다. 분야별 동향 분석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3.3 연구방법

연구방법에 따른 우리나라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총 65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양적연구 65편(100%), 질적연구 1편(1%)으로 이중 1편의 논문은 양적연구와 질적연구가 병행되었다[15]. 질적연구는 일본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의 글로벌 캠프 참여를 통해 다문화 수용성의 변화를 파악하는 연구로 확인 되었다[15]. 2012년까지 9편(14%)에 불과했던 양적연구는 2012년 이후 55편(85%)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7년 처음으로 양적연구와 병행된 질적연구가 게재되었다. 연구 기술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중단연구는 2013년까지 한편도 수행되지 않았으나 2013년 이후 8편(12%)이 수행되었으며 단면연구는 2012년까지 9편(14%), 2012년 이후 48편(74%)이 수행되었다. Table 2

Table 1. Field of Study Analysis

Study/Year	2008~2012	2013~2017	Total(%)
Social science etc	5	12	17(39)
Pedagogy	2	9	11(25)
Social Welfare Studies	0	4	4(9)
Interdisciplinarity	0	3	3(7)
Youth welfare	0	2	2(5)
Science & Technology studies	0	1	1(2)
Arts & Cultural Management	0	1	1(2)
Social Science	0	1	1(2)
Social science general	0	1	1(2)
Sociology	0	1	1(2)
Psychology	1	0	1(2)
Engineering science	0	1	1(2)
Total	8(18)	36(82)	44(100)

Table 2. Research Design Analysis

Design Year	Quant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Quant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Total(%)
	Research paper	Dissertation	Research paper	Dissertation	Research paper	Dissertation	
2008	1	0	0	0	0	0	1(2)
2009	2	0	0	0	0	0	2(3)
2010	0	0	0	0	0	0	0(0)
2011	1	0	0	0	0	0	1(2)
2012	4	1	0	0	0	0	5(8)
2013	6	3	0	0	0	0	9(14)
2014	7	2	0	0	0	0	8(12)
2015	9	5	0	0	0	0	14(22)
2016	4	5	0	0	0	0	9(14)
2017	10	4	0	0	0	1	15(23)
Total(%)	44(68)	20(31)	0(0)	0(0)	0(0)	1(2)	65(100)

Design Year	Longitudinal study		Cross-sectional study		Total(%)
	Research paper	Dissertation	Research paper	Dissertation	
2008	0	0	1	0	1(2)
2009	0	0	2	0	2(3)
2010	0	0	0	0	0(0)
2011	0	0	1	0	1(2)
2012	0	0	4	1	5(8)
2013	0	0	6	3	9(14)
2014	1	0	6	2	8(12)
2015	2	0	7	5	14(22)
2016	1	0	3	5	9(14)
2017	3	1	7	4	15(23)
Total(%)	7(11)	1(2)	37(57)	20(31)	65(100)

Table 3. Core theme

Theme Year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Total (%)
	Multicultural acceptability	0	2	0	1	2	6	9	12	6	12
Adolescent	1	0	0	1	4	2	2	4	3	4	21(7)
Community consciousness	0	0	0	0	0	0	2	3	1	7	13(5)
Multicultural education	1	0	0	0	2	1	4	1	0	3	12(4)
Self-esteem	0	0	0	0	0	1	1	3	0	3	8(3)
Cross-Cultural awareness	0	0	0	0	4	1	0	2	0	0	7(2)
Peer relations	0	0	0	0	0	0	3	1	1	1	6(2)
etc	3	8	0	3	13	24	25	43	14	31	164(58)
Total(%)	5(2)	10(4)	0(0)	5(2)	25(9)	35(12)	46(16)	69(25)	25(9)	61(21)	281(100)

3.4 주요개념

우리나라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주요개념 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주요개념의 분류는 논문에 입력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류하였으며 분류 시 같은 개념으로 정의된 용어들은 통합하여 분류하였다. 일부 주요개념이 검색되지 않는 5편의 논문은 주요개념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선정된

연구들의 주요개념을 분류한 결과 총 113건이 검색되었으며 281건이 사용되었다. 5건 이하로 검색된 주요개념은 기타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다문화 수용성이 50건(18%)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청소년 21건(7%), 공동체 의식 13건(5%) 다문화 교육 12건(4%), 자아존중감 8건(3%), 다문화 인식 7건(2%), 친구관계 6건(2%), 기타 요인 164건(58%) 순으로 분석되었다.

주요개념 사용을 연도별로 분석하였을 때 2008년 5건(2%), 2009년 10건(4%), 2010년 0건(0%), 2011년 5건(2%), 2012년 25건(9%), 2013년 35건(12%), 2014년 46건(16%), 2015년 69건(25%), 2016년 25건(9%), 2017년 61건(21%) 순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

4. 논의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65편을 연도, 학문분야, 연구방법,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연구 분석 결과, 2012년부터 2017년 까지 5~15편으로 연구가 급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첫 시행된 이후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한국사회에 적응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조기 인식 변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학문분야별 연구 분석에서 한국학술지인용색인 기준을 통해 연구 수행 분야를 분류한 결과 기타사회과학분야와 교육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연구의 대상자가 다문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사회과학분야 또는 교육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학문분야에서 주로 청소년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소수 연구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연구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연구방법에서는 양적연구와 병행된 질적연구 1편, 양적연구 65편으로 조사되었으며 양적연구에 편향되어 수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넷째, 주요개념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확인되었으나 친구나 교사관계와 같은 학교, 지역사회요인에 국한되어있으며 새로운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는 드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조사하여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들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 논문 선정 기준에서 청소년들의 인식 파악을 목적으로 대상자를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자들의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5. 결론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양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야와 방법도 점차 다양하게 확대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면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인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적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나아가, 일반 가정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 요인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Justice, (2018). *Korea Immigration Service 2016*. Ministry of Justice.
- [2] H. S. Chung, Y. S. Kim, T. M. Yi, K. H. Ma, Y. J. Choi, G. P. Park, C. Y. Tong, J. M. Hwang & E. N. Lee. (2016). *An Analysis on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5*.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 [3] S. M. Kim & K. E. Chung. (2013). *A qualitative study on the stigma experience of multicultural youth*. *Forum For Youth Culture*, 34, 27-49.
UCI : <http://uci.or.kr/G704-SER000002119.2013..34.006>
- [4] M. S. Park & M. J. Lee. (2014). *A Case Study on Causes of Conflict about Multicultural Adolescents Experience*. *Journal of education & cultur*, 20(3), 149-174.
DOI : <http://doi.org/10.24159/joec.2014.20.3.149>
- [5] G. H. Chung & J. Y. Lee. (2016). *The Influence of Discrimination and Coping Strategies on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Coping Strategi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36(3), 336-362.
DOI : <http://doi.org/10.15709/hswr.2016.36.3.336>
- [6] H. W. Byeon & S. H. Cho. (2015). *The Factors that Affects the Experience of Depressive symptom in*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Using QUEST Algorithm.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5(6), 67-76.

DOI : <http://doi.org/10.14257/AJMAHS.2015.12.02>

[7] J. J. Jung & S. H. Moon. (2011). *A qualitative study on the school experience of multicultural yout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8), 265-289.

UCI : <http://uci.or.kr/G704-000387.2011.18.8.012>

[8] J. Y. Lee & K. M. Kim. (2017).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Living in a Multi-cultural Family in South Korea: Gender Difference. Journal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21(2), 119-129.

DOI : <http://doi.org/10.21896/jksmch.2017.21.2.119>

[9] S. S. Ahn, Y. S. Kim, K. H. Ma, H. Y. Moon & M. J. LEE. (2016) *The 2015 Study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10] C. N. Suh. (2012). *A Desirable Futuristic Direc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r the Young - A Study Based on Survey of Multicultural Perceptions among Youths -.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18(1), 83-110. DOI : <http://doi.org/10.24159/joec.2012.18.1.83>

[11] S. K. Un. (2016).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on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 Compared Elementary School Student and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17(10), 685-695. DOI : <http://doi.org/10.5762/KAIS.2016.17.10.685>

[12] B. S. Hong. (2017). *A Study on the Effect of Teenagers' Self-Respect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 The Mediating Effect of Community sense -.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7), 83-110.

DOI : <http://doi.org/10.21509/KJYS.2017.06.24.7.83>

[13] S. Y. Lee & S. M. Jun. (2014). *Factors that have Impacts on the Multi-Culture Accepta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Focused on Self-Esteem, Community Closeness, Peer Attachment.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6(4), 103-121.

UCI : <http://uci.or.kr/G704-002137.2014.16.4.013>

[14] H. S. Yun. (2014) *Research Trend and Priority Subject of Research on North Korean Migrant Youth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11), 125-149.

UCI : <http://uci.or.kr/G704-000387.2014.21.11.008>

[15] S. A. Choi. (2017). *The Effect of Contact Experiences with Japanese students Toward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Recognition of Japa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M.E.*

변 해 원(Haewon Byeon)

[정회원]



▪ 2013년 2월 : 아주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학박사)

▪ 2011년 3월 ~ 2013년 2월 : 대림대학교 언어재활과 교수

▪ 2013년 3월 ~ 2017년 2월 : 남부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 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호남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언어치료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예측 모형, 데이터 마이닝, 의사소통장애, 빅데이터

▪ E-Mail : bhwpuma@naver.com

차 슬 기(Seulki Cha)

[정회원]



▪ 2013년 2월 : 대림대학교 언어재활과 (언어재활전문학사)

▪ 2017년 9월 ~ 현재 : 호남대학교 대학원 재활과학과 언어치료전공 석사과정

▪ 관심분야 : 노년기 의사소통장애, 메타연구

▪ E-Mail : 771317@naver.com